

대학 남자 육상 100m 연도별 최고 기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hanges in best records for each year University Men's Track 100m

이정호(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김경지*(한국체육대학교 강사)

Jungho Lee *Korea National Sport Univ* · Kyung-Ji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

요약

이 연구는 대한육상연맹에 기재 되어있는 시기를 중점으로 197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 대학 육상 100m 연도별 최고 기록을 탐색하고자 한다. 대학부 남자 100m 기록이 변화되어 온 과정들을 경기기록사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육상경기에 관련된 역사서적 및 100m 기록과 관련된 기사, 사진 자료, 연구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한국 대학 육상 남자 100m 기록은 1979년 서말구(동아대) 선수의 10초34로 시작되었으며, 이 기록은 당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다. 한국육상 100m의 기록은 31년 만에 경신되었지만, 아직 대학부 100m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어 42년간 경신되고 있지 않다. 이에 1979년부터 현재까지의 남자 대학부 100m 연도별 최고 기록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100m 결승 기록과 비교하면서 대학 육상 100m 종목에서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찰하여 한국 육상 100m가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best record per year for university 100m track in Korea from 1979 to 2021, focusing on the periods publish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The changes in the university mens 100m records were applied with match recorder method for examination and books on history on track and field meets, articles on 100m records, photos and researche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Korean university track mens 100m records began with Seo Mal-gu(Dong-A University) 's record 10.34 seconds in 1979 and it became Korea's best record at the time. Korea's track 100m record was renewed 31 years later but it remains as the best university 100m record. Hen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university 100m records for each year until present and contemplate on the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in university track 100m level.

Key words : Track and Field, 100m, Records

*kyungjikim88@gmail.com

1. 서론

육상경기는 1/100초, 1cm의 시간과 거리로 상대방과 경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박진감 넘치는 종목이다. 국제대회인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24개, 여자 23개로 총 47개의 종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남자 50km 경보 종목을 제외한 총 46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어 가장 많은 메달의 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대한육상연맹, 2021). 특히 육상경기의 100m 종목은 순간적인 폭발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100m는 육상경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운동능력의 기본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백형훈, 2008).

육상 100m 종목은 예전부터 흑인 선수들의 독무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 원인은 종목별 구합이 맞는 DNA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김민규, 2011.09.01.). 육상 단거리 종목의 왕국 자메이카 선수들은 ACTN-3 라는 유전자를 7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근보다 속근이 발달해 단단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근육의 수축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육상 단거리 종목은 아시아인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김기진, 안나영, 김재훈, 주영식, 2010). 하지만,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은 육상 100m 종목에서 9초대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중국의 쑤빙텐 선수는 9초91이라는 아시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인 최초로 결승 무대에 오르면서 아시아의 볼트로 불리고 있다. 쑤빙텐 선수는 2021년, 중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9초98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통산 7번째 9초대의 레이스를 펼치게 되었다(김용일, 2021.06.25.). 일본은 100m를 9초대에 뛰는 선수를 4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2021년 후세테오 스프린트 대회 결선에서 야마가타 료타 선수는 9초95로 일본 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한다(하남직, 2021.06.08.). 이는 2019년 사니 브라운 선수가 세운 9초97에서 0.02초 앞당긴 기록이었다. 이전에도 기류 요시히데 선수와 고이케 유키 선수가 9초98이라는 기록을 통해 9초대 스프린트로 불리고 있었다(하남직, 2021.06.25.). 이와 같은 아시아 국가의 100m 기록향상은 트랙 종목도 동양 선수가 넘어서지 못하는 구역이 아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아시아인이 세계무대에서 안 된다는 평계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육상경기 100m 종목에서 기록을 단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기록은 물론 세계기록 역시 장기간 경신되기는 쉽지 않다(오봉석, 2017). 이처럼 100m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훈련이나 경기 지원은 물론이고 유망한 선수층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육상 100m 종목에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선수에 동작을 중심으로 동작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를 살펴보면, 육상 100m 선수의 스타트 방법별 운동학적 비교분석을 진행한 연구와(오세진, 2005; 이대형, 김재운, 최수남, 2014; 이정태, 최수남, 이용식, 2016; 최수남, 오정환, 2015) 100m 선수의 질주 기술이나 100m 구간별 속도, 동작, 보폭, 피치

등을 운동 역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가(성봉주, 박미선, 유덕수, 정범철, 2014; 윤석훈, 2016; 이용식, 최수남, 2014; 장재근, 2006) 주로 이루어져 왔다. 어느 스포츠 종목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너무 편향된 연구만 이루어져 육상 100m 종목이 발전하는데 더디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한국육상 100m 종목의 기록을 0.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이는 분명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 육상선수는 2021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기준 5,215명이다. 2011년, 6,327명이었던 인구에서 10년 사이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줄어든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와 변해가는 체육 특기자에 대한 인식이 원인이 되고 있다(류소형, 탁진국, 2021). 이중 선수 수급이 가장 어려운 종별은 대학부이다. 2011년 대학 육상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남자 321명, 여자 148명으로 총 469명이었으며 당시 6,327명이었던 육상선수의 인원 중 10%도 안 되는 인원이었다. 10년이 지난 2021년, 대학 육상선수의 인원은 더욱 줄어들었는데 남자 242명, 여자 115명으로 총 357명의 선수가 대한체육회의 등록되어 있어 선수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든 실정이다(대한체육회, 2021).

초, 중, 고등학교 스포츠와 실업이나 프로 스포츠 사이에서 견인 역할을 해오던 대학 스포츠가 최근 몇 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축소, 입시 및 스카우트 관련 비리 문제, 대학생 선수의 학력 저하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점차 관심을 잃어왔고, 대학 운동부 존재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한진욱, 2019). 이처럼 전문 스포츠의 산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대학 스포츠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문 스포츠에 허리가 끊어지게 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모든 스포츠에 기초가 되는 육상 종목에 대한 파악과 발전이 중요하며,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체육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기기록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대한육상연맹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를 중점으로 197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 대학 육상종목 중 100m의 연도별 최고 기록을 탐색하여 수집하였으며, 현 한국 대학 육상 100m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기재되어 있는 하계유니버시아드 100m 결승기록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대학부 남자 100m 기록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경기기록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육상 경기와 관련된 역사서적 및 100m 기록과 관련된 기사, 사진 자료, 연구물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경기기록사 연구 방법은 인간, 시간,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최종삼, 손수범, 2011). 이는 스포츠를 통해 시대별로 파생되는 문화 현상을 알아보고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고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학래, 2003).

한국 대학 육상 남자 100m 연도별 최고 기록은 1979년 서말구(동아대) 선수의 10초34로 시작되었으며, 이 기록은 당시 한국 신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임재훈, 2015.12.01.). 한국육상 100m의 기록이 경신되기까지 3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 기간을 두고 ‘질곡의 세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이해완, 2010.06.07.). 100m의 한국 신기록은 31년 만에 수립되었지만, 10초34라는 기록은 현재까지 42년간 대학부 100m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다. 한국 대학육상의 100m 기록은 해가 거듭될수록 퇴보되었고, 1985년 심덕섭(한국체대) 선수의 10초39의 기록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10초 3대 진입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79년부터 2021년인 현재까지의 대학부 100m 최고 기록을 연도별로 탐구하면서 대학 육상 100m에서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대학 육상 100m의 기록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장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향상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전문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자료의 기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한국육상경기사와 한국체육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1979년~1989년 연도별 최고 기록

한국 대학 남자 육상 100m 연도별 최고 기록은 1979년 멕시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기록한 서말구(동아대) 선수의 10초34로 시작된다. 이 기록은 1980년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출전기준 기록인 10초44보다 빠른 10초34를 달려 한국 신기록과 더불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다(경향신문, 1979.09.11.). 하지만, 1979년에 일어난 러시아(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67개국이 불참하는 사건으로 가장 위기를 맞은 대회였으며, 한국 역시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서말구 선수는 올림픽의 출전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10초34라는 기록은 한국육상 100m 역사상 길이 남게 되었다.



그림 1. 10초 34,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동아대학교의 서말구 선수 (경향신문, 1979.09.11.)

이전까지 국제시합에서만 전자 계측을 통해 100분의 1초까지의 기록이 측정되어 오다 1982년부터 한국육상에서도 전자 계측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성균관대학교의 장재근 선수가 10초72

라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 그해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불안정한 기록 측정으로 인해 대한육상연맹에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가 1985년부터 안정되었는데 이 시기에 심덕섭(한국체대) 선수가 한국 신기록의 가까운 10초39라는 기록을 수립하며 한국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1985.05.13.). 이 기록은 제14회 전국 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당해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1986년, 이종후(경북대) 선수가 제41회 전국남여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50으로, 1987년, 호성원(한국체대) 선수는 제1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전종인(경북대) 선수는 제42회 전국남여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61이라는 기록으로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 또한, 1988년에는 한국체대 김복섭 선수의 10초60에 기록이 연도별 최고 기록으로 수립 된다(김동철, 1987.07.14.; 대한육상연맹, 2021; 홍순강, 1988.04.29.). 1989년, 제7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당시 한국체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진선국 선수가 10초61이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 신기록과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동아일보, 1989.09.28.; 조선일보, 1989.09.28.). 이는 육상 100m 종목에서 진선국이라는 스타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대한육상연맹, 2013; 조선일보, 1989.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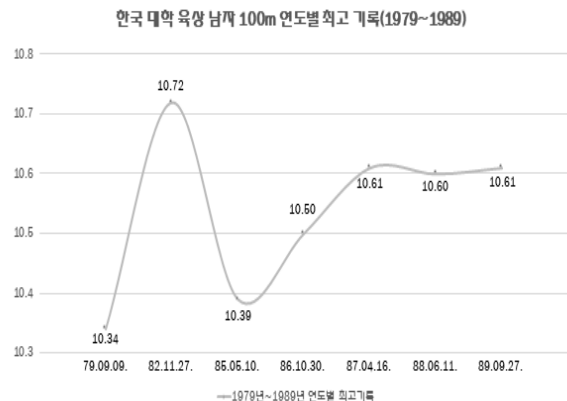


그림 2. 1979~1989년 100m 연도별 최고 기록

III. 1990년~1999년 연도별 최고 기록

1990년도부터 1992년까지 진선국(한국체대) 선수의 단독 선두체제가 시작된다. 1990년 진선국 선수는 제4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61이었던 자신의 최고 기록을 10초46의 대회 타이 기록을 수립하며,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 이에 주춤하지 않고 1991년, 진선국 선수는 제4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40의 기록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한다. 이 기록은 1985년 심덕섭 선수가 수립한 10초39 다음으로 10초 34라는 대학 최고 기록에 가장 근접한 기록이 되었다(동아일보, 1991.06.09.). 1992년,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진선국 선수는 자신이 3년 전에 수립했던 대회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10초42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한다. 이로써 진선국 선수는 대학교 4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학부 시즌 랭킹 1위의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는 선수가 된다(연합뉴스, 1992.10.11.)



그림 3. 진선국(한국체대) 선수의 역주
(한겨레, 1993.05.14.)

1993년, 김상도(한국체대) 선수는 제4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61이라는 기록으로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한겨레, 1993.06.16.). 1994년에는 이형근(성균관대) 선수가 제4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52로, 1995년과 1996년에는 신정기(한국체대) 선수가 연도별 최고 기록(10초50, 10초62)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1997년에는 강태석(한국체대) 선수가 제52회 전국남여대학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초62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1998년, 1999년에는 백수진(한국체대) 선수가 2년 동안 10초67이라는 기록으로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동아일보, 1999.10.13.; 조선일보, 1997.06.21.). 1992년 진선국 선수 이후 1999년도까지 대학부 100m 연도별 최고 기록은 10초 중반대에 머물며, 기록향상의 침체기를 보여주지만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994년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체대 100m 선수들이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시즌 랭킹 1위를 기록한다. 이는 육상 단거리 명문 학교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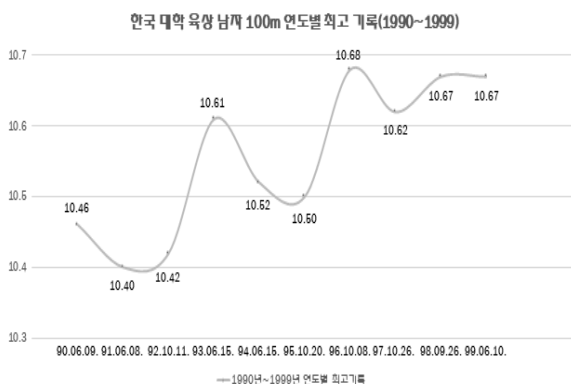


그림 4. 1990~1999년 100m 연도별 최고 기록

IV. 2000년~2011년 연도별 최고 기록

한국 대학 남자 육상 100m 기록은 여전히 경신되지 않은 채 2000년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성균관대학교의 이광필 선수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기록은 2000년, 제55회 전국남녀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61로 대회 타이 기록을 수립하였고, 2001년은 10초58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에는 10초56을 기록하였다(연합뉴스, 2002.11.11.). 2003년 충남대학교의 전덕형 선수가 10초67이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연도별 최고 기록을 세우지만, 다음 해, 2004년, 10초62를 기록한 조성권(공주대) 선수에게 1위 자리를 내준다(양종구, 2004.03.16.). 하지만, 전덕형 선수는 2005년, 제5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51을 기록하며 1위를 탈환해온다. 이처럼 대학부 100m 선수들 사이에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양종구, 2005.01.07.).



그림 5. 전덕형(충남대) 선수의 1위 탈환
(연합뉴스, 2006.09.27.)

2006년, 1979년에 서말구 선수가 수립했던 10초34가 27년간 경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육상연맹은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선수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걸었는데 기존 한국 신기록 수립 시 500만 원을 지급했던 금액에서 1억원이라는 금액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세계신기록을 수립할 경우 10억원,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3억원이라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길우, 2006). 이러한 노력에 응답이라도 하듯 박평환(조선대) 선수는 제61회 전국남여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46이라는 기록으로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이동철, 2006.06.13.). 2007년, 이준우(한국체대) 선수가 제3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0초60이라는 기록으로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

2008년에는 여호수아(성결대) 선수가 제37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48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시즌 랭킹 1위에 오르지만, 몇 달 뒤 제62회 전국남녀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충남대의 김민균 선수가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여호수아 선수와 같은 10초48을 기록해 2008년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2011년까지 대학 4년 동안 김민균 선수는 대학부 랭킹 1위 선수가 된다. 김민균 선수의 기록은 2009년 10초43, 2010년 10초44, 2011년 10초60을 기록한다(대한육상연맹, 2021). 이는 1989년에서 1992년 대학부를 석권했던 진선국 선수 이후 두 번째로 대학부 100m

종목 왕좌에 오르게 된다.

이 시기에 한국 육상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31년간 묵혀있던 100m 한국 신기록이 경신되었는데 대학 선수는 아니지만, 김국영(안양시청) 선수가 10초31이라는 기록을 수립하며 대한민국 육상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노주환, 2010.06.07.). 당시 김국영 선수의 나이는 20세, 대학 선수의 해당하는 나이이다. 이에 김민균 선수나 비슷한 또래 나이 선수들의 라이벌 구도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 유추해 본다.



그림 6. 한국 신기록 수립 후 환호하는 김국영 선수(연합뉴스, 2017.06.27.)

표 1. 2000년~2011년 연도별 최고 기록(대한육상연맹, 2021)

날짜	100m 기록	이름	소속
2000.10.06.	10.61	이광필	성균관대학교
2001.10.11.	10.58	이광필	성균관대학교
2002.05.28.	10.56	이광필	성균관대학교
2003.10.11.	10.67	전덕형	충남대학교
2004.09.14.	10.62	조성권	공주대학교
2005.06.03.	10.51	전덕형	충남대학교
2006.06.13.	10.46	박평환	조선대학교
2007.04.30.	10.60	이준우	한국체육대학교
2008.05.07.	10.48	여호수아	성결대학교
2008.09.04.	10.48	김민균	충남대학교
2009.09.03.	10.43	김민균	충남대학교
2010.09.07.	10.44	김민균	충남대학교
2011.10.08.	10.60	김민균	충남대학교

V. 2012년~2021년 연도별 최고 기록

10초 초반대와 중반대를 오가던 연도별 최고 기록은 10초 중반대에 머무르며 다시 한번 대학 육상 100m 종목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2012년, 유민우(한국체대) 선수는 10초55라는 기록으로 제67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에는 2년 연속 경북대학교의 이재하 선수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록은 2013년 10초53을, 2014년 10초63을 기록한다. 두 경기 모두 전국체육대회에서 수립하였으며 2년 연속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박종진, 2013.12.28.; 변종현, 2014.11.04.).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우삼(성결대) 선수는 10초53이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2016년 김병찬(한국체대) 선수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10초55를 기록하며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심언규, 2016.10.04.). 2017년, 이지우(한국체대) 선수는 제7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50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승환(성균관대) 선수가 제72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10초50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2019년, 제48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박시영(부산대) 선수는 10초50을 기록하며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대한육상연맹, 2021).

10초 중반 때에 머물러 있던 한국 대학 육상 100m 종목의 기록은 2020년,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게 된다. 2020년 7월 11일 이준혁(한국체대) 선수는 제49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예선과 준결승전을 지나 드디어 결승 무대, 3레인에 배정을 받는다(대한육상경기연맹, 2021). 출발 충성이 울리고 이준혁 선수는 힘차게 역주한다. 기록은 '10초43' 작년 본인의 최고 기록에서 0.1초를 단축한 기록이다(서상택, 2021). 100m 경기는 0.01초를 줄이기도 힘든 종목의 특성상 1년 만에 0.1초의 기록향상은 엄청난 성장세라 할 수 있다.

“출발할 때 느낌은 좋았는데.. (중략) 스타트 보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했기 때문에 스타트가.. 스타트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대학 부별신을 깨고 싶습니다(STN SPORTS 인터뷰 中 2020.08.05.).

이준혁 선수의 목표는 대학부 최고 신기록, 이 기록은 한때, 31년간 경신되지 않았던 한국 신기록이자 한국육상 대학부 100m 기록의 시작이었던 서말구 선수의 10초34이다. 이준혁 선수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10초40을 기록하게 된다(김재광, 2021.06.09.). 이 기록은 1985년, 심덕섭 선수의 10초39, 1991년, 진선국 선수의 10초40에 이은 한국 대학부 100m 최고 기록에 가까운 기록이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이준혁 선수, 대학교 졸업 전 자신이 계획했던 목표를 이뤄내어 한국육상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그림 7. 이준혁(한국체대) 선수의 역주(하남직, 2021.06.06.)

표 2. 2012년~2021년 연도별 최고 기록(대한육상연맹, 2021)

날짜	100m 기록	이름	소속
2012.04.26.	10.55	유민우	한국체육대학교
2013.10.20.	10.53	이재하	경북대학교
2014.10.30.	10.63	이재하	경북대학교
2015.10.18.	10.53	김우삼	성결대학교
2016.10.09.	10.55	김병찬	한국체육대학교
2017.06.02.	10.50	이지우	한국체육대학교
2018.07.11.	10.50	고승환	성균관대학교
2019.05.04.	10.50	박시영	부산대학교
2020.07.11.	10.43	이준혁	한국체육대학교
2021.06.03.	10.40	이준혁	한국체육대학교

197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 대학 육상 100m의 연도별 최고 기록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한국 대학 육상 100m의 현 시점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주관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 중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진행되었던 육상 100m 결승기록과 그 수준을 비교하였다. 우선,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육상 100m의 결승은 브라질의 카밀로 선수가 10초09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밴 와이크 선수가 10초23으로 2위를, 브라질의 두나시멘토 선수가 10초32로 3위를 하였다. 이어서 4위는 10초36으로 슬로바키아의 볼코 선수, 5위는 10초39로 캐나다의 아세모타 선수가 기록하였다. 체코의 잘레스키 선수가 10초42로 6위를, 일본의 미야모토 선수가 10초43으로 7위로 결승점을 통과하였다. 포르투갈의 나시멘토 선수는 DNS(Did Not Start)로 출발을 하지 않았고 경기를 포기하였다(국제대학스포츠연맹, 2021).

표 3.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100m 결승기록

순위	이름	나라	기록
1	CAMILO Paulo Andre	브라질	10.09
2	VAN WYK Chederick M	남아프리카공화국	10.23
3	DO NASCIMENTO Rodrigo	브라질	10.32
4	VOLKO Jan	슬로바키아	10.36
5	ASEMOTA Duan	캐나다	10.39
6	ZALESKY Dominik	체코	10.42
7	MIYAMOTO Daisuke	일본	10.43
DNS	NASCIMENTO Carlos	포르투갈	DNS

2021년, 한국 대학부 육상 100m의 최고 기록은 이준혁 선수의 10초40,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의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유니버시아드 결승 진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결승기록 중 1위의 10초09, 2위의 10초23을 제외하고 3위부터의 기록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꾸준한 기록 단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 100m 육상선수의 추세를 보았을 때 다가올 2021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메달획득도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기록에 안주하지 말고 지도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의 적용과 선수의 하고자 하는 의지나 마음이 필요하며, 주치의 전폭적인 지원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육상이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이처럼 대학부에 발전은 한국 육상 전체를 발전시키는 밑바탕이 되어 줄 것이며, 하루빨리 세계육상 100m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기록이 빛을 바라는 순간이 다가오기를 기대해본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한육상연맹에 기재 되어있는 시기를 중점으로 197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 대학 육상 100m 연도별 최고 기록을 탐색하고자 한다. 대학부 남자 100m 기록이 변화되어 온 과정들을 경기기록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육상경기에 관련된 역사서적 및 100m 기록과 관련된 기사, 사진 자료, 연구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979년 서말구(동아대) 선수의 10초34로 대학부 기록은 시작된다. 1982년 전자 계측이 한국육상의 도입 후 장재근(성균관대) 선수가 10초72를 기록하였고, 1985년 심덕섭(한국체대) 선수가 제14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초39의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후, 1986년 이종후(10초50), 1986년 호성원(10초61), 1987년 전종안(10초61), 1988년 김복섭(10초60) 선수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고, 1989년 1학년이었던 진선국(한국체대) 선수가 10초61이라는 기록으로 대학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다.

둘째, 1990년도부터 1992년까지 진선국(한국체대) 선수가 대학부 100m를 석권한다. 이후 1993년 김상도(10초61), 1994년 이형근(10초52), 1995년~1996년에는 신정기(10초50, 10초68) 선수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1997년에는 강태석(10초62) 선수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백수진(10초67) 선수가 대학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다.

셋째,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광필(성균관대) 선수가 대학부 100m를 석권한다. 2003년에는 전덕형(10초67) 선수가, 2004년에는 조성권(10초62) 선수가, 2005년에는 다시 전덕형(10초51) 선수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한다. 2006년 박평환(10초46), 2007년 이준우(10초60), 2008년 여호수아(10초48) 선수가 최고 기록을 수립하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김민균(충남대) 선수가 대학부 100m 랭킹 1위로 군림한다.

넷째, 2012년 유민우(10초55) 선수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고, 2013년~2014년 이재하(10초53, 10초63) 선수가 수립하였다. 2015년 김우삼(10초53), 2016년 김병찬(10초55)가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이지우, 2018년 고승환, 2019년 박시영 선수 모두 10초50의 기록으로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지만, 2011년부터 10초 중반대에 침체기를 맞이한다. 이후 2020년 이준

혁(한국체대) 선수가 10초43의 연도별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고 이어서 2021년 자신의 기록을 한 번 더 단축하며 10초40이라는 기록으로 대학부 100m 최고 기록인 10초34의 근접하게 되었다. 이 기록은 유니버시아드 결승기록으로 2021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100m 경기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육상 대학부 남자 100m 선수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한국육상 100m의 기록은 한발 도약된 상태로 대학부는 물론 고등부, 일반부에서 모두 10초 초반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기록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집된 연도별 최고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선의의 경쟁자가 많을수록 기록이 경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듯이 현재 기록을 뛰어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육상 100m 종목에서도 9초대 선수가 탄생할 수 있길 희망해본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1979.09.11.). **멕시코 U대會 韓國남자排球 銀 확보**. 경향신문.
- 국제대학스포츠연맹(2021). **2019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육상경기 100m 결승기록**. 홈페이지 자료(<https://www.fisu.net/sports/results/summer-universiade/30th-summer-universiade>).
- 김기진, 안나영, 김재훈, 주영식(2010). 우리나라 육상선수의 ACTN-3 유전자 다형성. **코칭능력개발지**, 12(4), 105-110.
- 김동철(1987.07.14.). **육상남자 1백m 1회전에 출전한 한국의 盧誠元**. 동아일보.
- 김민규(2011.09.01.). **단거리는 흑인, 투척은 백인 강세...이유는 DNA?**. 중앙일보.
- 김용일(2021.06.25.). **동양의 한계 없다...육상 저변 확대+정부 지원 '스포츠 선진국' 진짜 지름길**. 스포츠서울.
- 김재광(2021.06.09.). **경산시청 육상부,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금4, 은1 획득**. 웹플러스 뉴스.
- 노주환(2010.06.07.). **김국영 한국 남자 100m 한국신...31년만에 깨져**. 스포츠조선.
- 대한육상연맹(2013). **한국육상경기 100년사**. 서울: 대한육상연맹.
- 대한육상연맹(2021). **연도별 최고 기록변천사**. 홈페이지 자료 (<http://www.kaaf.or.kr/>).
- 대한체육회(2021). **선수 및 팀 등록 현황**. 홈페이지 자료 (<https://www.sports.or.kr/index.do>).
- 동아일보(1985.05.13.). **陸上「跳躍의 날개」 달다 張在根 2百m서 아시아新...종별대회 韓國新 13**. 동아일보.
- 동아일보(1989.09.28.). **전국체전 柳赫, 투포환 한국신 투척**. 동아일보.
- 동아일보(1991.06.09.). **무더위 쐬은「韓國新소나기」**. 동아일보.
- 동아일보(1999.10.13.). **체전기록실**. 동아일보.
- 류소형, 탁진국(2021).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1), 33-65.
- 박종진(2013.12.28.). **육상도시 대구의 명과 암**. 영남일보.
- 백형훈(2008). **스포츠 현장 : 한국 육상 단거리(100m)종목의 현실과 과제**. **스포츠 과학**, 103, 65-73.
- 변종현(2014.11.04.). **미래 가능성 보여준 대구...불운했지만 잘 싸운 경북**. 영남일보.
- 서상택(2021). **되돌아보는 2020년 한국 육상**. **육상스토리**, 8, 3-9.
- 성봉주, 박미선, 유덕수, 정범철(2014). 육상 100m 국제대회 결승진출자와 한국대회 결승진출자의 기록, 보수, 보폭, 평균보속, 피치 및 반응시간 비교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2(1), 195-206.
- 심언규(2016.10.04.). **경기육상 25년·배구 7년... 연속 우승 예상 종목 14개**. 경기일보.
- 양종구(2004.03.16.). **[육상] 10초 34 "25년 묵은 100m기록 깬다" 극비 훈련 돌입**. 동아일보.
- 양종구(2005.01.17.). **[육상] 日서 육상유학 전덕형 "100m 10초34 올핸 깨집니다"**. 동아일보.
- 연합뉴스(1992.10.11.). **체전기록종합**. 연합뉴스.
- 연합뉴스(2002.11.11.). **-전국체전- 전덕형, 육상 단거리 새 희망**. 연합뉴스.
- 연합뉴스(2006.09.27.). **전덕형 "육상 100m 한국기록 깬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2017.06.27.). **대한민국 육상 역사 새로 쓴 '김국영'**. 연합뉴스.
- 오봉석(2017). 한국 육상경기 100m 공인기록 수준별 비교. **코칭능력개발지**, 19(2), 59-67.
- 오세진(2005). 육상 100m에서 스타트 동작 후 첫 발의 운동역학적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6(5), 519-524.
- 윤석훈(2016). 남자 육상 단거리 100 m 선수 기량 차이에 따른 질주 기술의 운동역학적 일관성 비교. **스포츠사이언스**, 33(2), 137-145.
- 이길우(2006.03.07.). **남자마라톤·100m 한국신 깨면 1억원**. 한겨레.
- 이대형, 김재운, 최수남(2014). 육상 여자 100 m Bunch Start 출발 구간의 운동학적 비교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3(5), 457-466.
- 이동철(2006.06.13.). **박평환, 100m 10초46...10년 만에 최고기록**. 연합뉴스.
- 이용식, 최수남(2014). 엘리트 육상 단거리 Running 속도요인에 기여하는 100m 구간속도 비교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3(3), 731-737.
- 이정태, 최수남, 이용식(2016). 육상 100 m 속도개선을 위한 Elongated Start 출발 구간의 운동학적 비교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1501-1513.
- 이학래(2003). **한국체육사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이해완(2010.06.07.). **한국 육상 100m 31년간 질곡의 도전사**. 스포츠조선.
- 임재훈(2015.12.01.). **'100m 전설' 서말구, 리우 향하는 한국 육상이**

기억해야 할 이름. 데일리안 스포츠
장재근(2006). 엘리트 육상 단거리 선수들의 100m 달리기시 구간속
도 비교. **한국스포츠리서치**, 17(1), 293-300.
조선일보(1989.09.28.). 제70회 전국체전 <2일제> **李영숙 육상100m**
“雨中 한국新”. 조선일보
조선일보(1989.12.21.). **육상대표팀 부분개편**. 조선일보
조선일보(1997.06.21.). 스코어보드 scoreboard. 조선일보
최수남, 오정환(2015). 대학 육상선수의 100m Medium Start 출발 구
간에 대한 운동학적 비교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2),
89-100.
최종삼, 손수범(2011). **스포츠 체육사의 이해**. 서울: 21세기교육사.
하남직(2021.06.06.). 이준혁, **KBS배육상 남자 일반부 200m 우승··21**
초16. 연합뉴스

하남직(2021.06.08.). **일본 육상 100m 신기록 9초95..야마가타 “다음**
목표 아시아新”. 연합뉴스
하남직(2021.06.25.). **日육상 다다, 올림픽 선발전 100m우승··기류·**
사니 브라운 탈락. 연합뉴스
한겨레(1993.05.14.). **진선국 100m‘황금질주’**. 한겨레.
한겨레(1993.06.16.). **전국육상 진선국 100m 대회신**. 한겨레.
한진옥(2019). **한국 대학스포츠 현황 및 발전 방향**. 서울: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홍순강(1988.04.29.). **한국육상 남자 100m 기록 9년째 ‘요지부동’**. 동
아일보
STN SPORTS(2020.08.05.). **제4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3일차,**
100m 남대결승, 이준혁 우승인터뷰. STN SPORTS.